

전남

광양항 근린공원 쓰레기 '몸살'

해양환경청이 광양항 인근에 조성한 근린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각종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몸살을 겪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청과 광양시가 공원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여수 해양환경청에 따르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공사 2단계 사업에 2천157억원을 투입해 부대공사의 하나로 20만2천919㎡(6만2천여평) 규모의 근린공원을 지난해 12월 조성하고, 5만9천965㎡(1만8천여평)의 완충녹지를 만들었다.

근린공원은 각종 조형물과 체육시설, 벤치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체육·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해양항만청 - 광양시 관리책임 떠넘기기

시민 이용 저조·청소년 범죄 온상 우려

그러나 흥부부족과 접근성 열악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데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했다는 여론이 높다.

조성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공원은 무성한 풀밭으로 변했으며, 각종 쓰레기가 쌓이면서 악취까지 내뿜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공원관리 책임을 놓고 해양항만청과 광양시가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해양항만청이

그동안 광양시에 수차례 관리권 인수를 요청했으나, 광양시는 '국유지에 국비로 조성된 공원에 대해 연간 수억원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양쪽의 관리권 떠넘기기가 장기화되면서 조형시설마저 가동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국가

시설물을 국가가 위탁하려면 유지관리 비용을 주면서 관리를 맡겨야 한다"면서 "시의회 승인절차도 없어 현재의 명분 없는 조건으로는 관리권을 인수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수 해양항만청 이용이 과장은 "계속 광양시가 공원관리권 위탁을 거부할 경우 인근 컨테이너 부두 공간에 관리권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양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30일 "근린공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의 책임있는 결단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박영민기자 dhkim@kwangju.co.kr



호기심 '쑥쑥' 갯벌생물 관찰하기

해양항만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험행사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무안 해저면 유원리 갯벌에 서식하는 환발생물 등 갯벌생물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진 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30일 무안 생태갯벌센터에서 입체영상을 통해 갯벌생태 체험을 하고 있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험행사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무안 해저면 유원리 갯벌에 서식하는 환발생물 등 갯벌생물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목포=이상진기자 sslee@

'고흥 한우' 우수성 알린다

축산 단체장·농가 한우사업단 발대식

고흥군은 지난달 30일 문화회관에서 축산관련 단체장과 한우 사육농가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이날 고흥 축협과 군 한우협회를 주축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흥한우사업단(운영위원장 박주순)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로 예정된 농민

수산물품부의 한우사업단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했음 물론 한우관련 정책사업 추진과 각종 선진 사양사업 단, 체계적인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일등 고흥 한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군은 또 이날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업무 추진본부 현관

식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한우사업단 구성을 계기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우수육소 혈통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모색해 지역경제에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국경기자 gjju@

200회 맞는 '강진 다산강좌'

소설가 은미희씨 강연

강진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당대 최고의 전문가와 명사들을 초빙해 여는 '강진 다산강좌'가 3일 200회를 맞는다.

200회 강연에는 여류 소설가 은미희(48)씨가 '초미나 지방정부'를 주제로 강연하고 강연 뒤에는 조철환 기념행사도 이어진다.

다산강좌는 지난 1998년 10월 제1회 자치강좌로 출발해 2004년 5월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아 '강진 다산강좌'로 명칭을 바꿔 매달 2차례 열고 있다. 강

연마다 300명이 넘는 주민과 공무원, 학생이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의 방정객 수가 1만명을 넘는 명품 교육강좌로 자리잡았다.

지금까지 200회를 이어오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임권택 영화감독, 박명재 전 행사부장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김훈 소설가, 정호승 시인 등 장·관계, 학계, 예술계 저명인사가 강사로 초빙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군민에게 다가서고 군정발전에 일조하는 '다산강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보성 녹차, 군수가 보증합니다

품질 인증 38개사 제품 첫 출시

보성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보성녹차가 본격 출시됐다.

보성군은 보성녹차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3차례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위원회를 열어 관내 45개 차 제조 가공업체에서 신청한 77개 제품이 운대 38개 업체 58개 제품에 대해 군수품질 인증을 실시했다.

보성군은 고품질 보성녹차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형, 차맛, 색, 향, 우린 일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대상으로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녹차제품은 인증상표와 함께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가 기재된 설명서가 부착돼 시중에 유통·판매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보성녹차는 소비자에게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차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판매 촉진에 통한 녹차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전남농협 1억4천500만원 출연

중·소상공인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1억4천500만원을 출연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2002년부터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액의 0.6%를 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남본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인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지난해 대폭 확대해 전년 말에 비해 212억원이 증가한 530억원을 지원했다.

김용복 본부장은 "전남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

농협 안도지부 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중앙회 안도군지부와 안도농협이 과잉생산된 안도쌀 소비촉진에 팔을 걷어붙였다.

안도군지부와 안도농협은 일일철건 안도군지부장, 정남선 안도농협조합장, 각 읍·면 조합장, 농협 임직원, 안도군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도쌀을 먹읍시다' 캠페인 및 나눔행사를 실시했다.(사진)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오전 7시 안도수산물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아침밥이 보약'이라는 내용의 전단지과 함께 안도 쌀로 만든 김밥과 떡을 나눠주었다.



또한 '안도사람 안도 쌀을 먹읍시다'라는 슬로건으로 안도읍 관내 상가와 식당 등 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도농협 RPC에서 만든 소포장 쌀 500개를 나눠주며 안도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나눔행사 일환으로 안도 관내 노인복지센터 5곳에 20kg를 10포를 전달했다. /안도=정은조기자 ejchung@

녹동파출소 명품 선정

종합 민원서비스 제공

녹동파출소가 명품파출소로 선정됐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창설 이후 최초로 국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명품 파출소'로 녹동파출소(소장 허순중)를 선정, 1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명품 파출소'는 일반 파출소와 달리 민원 및 관공실이 많은 곳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업무능력이 가장 뛰어난 경찰관으로 구성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동시에 민원인을 위한 PC방 및 체육공간을 갖추는 등 종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능별 베테랑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특성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주국경기자 gjju@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National Auction' (국민법률경매) featuring a grid of auction lots with columns for location, lot number, area, and pr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yeonghui' (광영회) and 'Korea National Auction' (국민법률경매).